

美, 완화 ‘對이란 제재’ 전면 복원

석유 수출 차단 등이 핵심... 외신 “한국은 제재 일시 면제 명단에 오를 가능성... EU 회원국은 면제대상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타결) 체결로 완화했던 대(對) 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미국은 5일 오전 0시(한국시간 5일 오후 2시)에 발효되는 2단계 제재는 운송, 에너지, 금융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고 외국 금융기관과 이란 중앙은행간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은 지난 8월 이란과의 자동차, 금, 귀금속 거래를 금지하는 1단계 조치를 발효한데 이어 이번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2015년 핵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이번 조치로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 나라들과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란 기관과 거래한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이 테러 지원 중단,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중단,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완전 중단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은 그동안 이란 제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준 8개국에 대해서는 석유 금수 조치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국가들이 단계적으로 석유 수입을 줄여갈 수 있

록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과 AP통신 등 외신은 한국, 인도, 일본, 이탈리아, 터키 등 8개국에 제재 일시 면제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란 문제로 미국 정부와 각을 세우

고 있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면제 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8개국) 이란산 원유 수입을 0으로 만들기 위

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에 제재 조치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중 6개국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크게 감축하고 2개국은 중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김정숙 여사가 5일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에서 수시마 스와라지 외교장관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가 5일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에서 수시마 스와라지 외교장관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우를 지원해주세요” 5일 전북도청 전경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동수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정운섭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기정을 위한 한우고기 1.3톤(6,000만원 상당) 후원금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

전주 사회적기업 ‘예술기획 My Stage’ 우수상

전주 사회적기업인 예술기획 My Stage(대표 선홍진)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클라우드 펀딩 시민투자오디션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예술기획 My Stage는 이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했으며, 심사위원단과 일반 시민투자자 100여명의 모바일 현장 투표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발됐다.

수상 기업들에게는 총 상금 790만원과 함께 보증대출 연계지원, 기업투자정보마당에 기업정보 공개를 통해 추가 클라우드펀딩을 추진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다.

예술기획 My Stage는 2012년 설립하여 2014년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2015년 사회적기업 인증 받았으며 공연예술의 기획, 행정, 관리로 구성된 결합 서비스 및 영상,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사업분야로 진출 성장하며 전주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개최된 전주 사회적경제조직 클라우드펀딩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주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전주시는 다수 시민들이 소셜 미션에 참여해 사회적경제가치가 확산되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발적, 독립적으로 자금조달 실행능력을 키울수 있도록 클라우드펀딩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지역 생생마을 우수성 ‘인정’

완주 오성한옥마을,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발표서 ‘최우수상’ 수상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2018년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완주군 소양면 오성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이번 대회는 지난 11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 전국 9개 시도에서 추천된 9개 마을이 참여했다.

농촌현장포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 주도 현장 활동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마을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농식품부는 주민주도형 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및 주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전국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완주 오성마을은 전라북도 우수 생생마을 중의 하나로서,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원주민과 귀촌인들이 소통과 협력으로 마을의 단합과 갈등해결 두 가지 난제를 풀고, 주민주도로 낡고 낙후된 농촌마을을 전통한옥마을로 재탄생시켜 외부인들이 찾아오는 공원마을로 성공시킨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진성 기자

시상은 오는 11월 20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되는 2018년 주민주도마을만들기 관계자 워크숍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도 농촌활력 및 감성열 과장은 “농촌마을들이 농촌현장포럼을 계기로 각 마을만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 주민주도형 마을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마을 사업의 토대가 될 것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품격, 인구감소 등으로 침체된 농촌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공동체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개발청, 홍보 등에 홍보 드론영상 등록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다듬지도에 등록했다고 5일 밝혔다.

새만금청과 카카오톡은 2016년 9월1일 새만금지역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다음지도에 새만금기본계획과 새만금 주요지역 드론영상을 등록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한 홍보 영상은 새만금 동서도로와 농생명용지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배후도시용지와 관광레저 용지 등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10곳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현장을 소개하는 생생한 영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농업인단체 활성화 · 농업발전 기여

전주농업인단체연합회, 박형배 · 김승섭 · 김원주 시의원에 감사패

전주농업인단체연합회는 지난 2일 농업인단체 활성화와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주시 의회 박형배(효자동), 김승섭(삼천1.2동), 김원주(봉남, 노송,인후3동)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연합회는 지난 2일 제23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들 의원들이 전주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했고 특히, 전주시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5일 밝혔다.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은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농업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주시

의회는 농업인단체 활성화와 스마트 농업 관련 기술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의 자기진작을 위한 ‘제23회 전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전주시농업인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양원 전주시장과 박병술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전주시 7개 농업인단체(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 4-H 분부,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농민회, 여성농민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